

(auri)

한옥정책 BRIEF

No. 1

국가한옥 센터의 비전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손세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권영상

국가한옥센터장

한옥정책브리프 제1호

2011년 10월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인

손세관

431-908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아크로타워 B동 301호

T 031.478.9600

F 031.478.9609

www.auri.re.kr



국가한옥센터에 바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의 〈한옥정책브리프〉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5월 12일 국가한옥센터 개소식에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주신 많은 내외규빈들을 보면서, 앞으로 한옥 발전에 기여할 국가한옥센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옥정책브리프〉 발간을 계기로 한옥문화진흥을 선도하는데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큰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간 경제발전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G20 회원국으로서 국격에 걸맞는 국토환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국토환경의 품격은 바로 국가 경쟁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국토환경은 국가의 고유 자산으로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품격과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에서 2010년 5월, 6개 정부부처와 함께 ‘국격향상을 위한 新한옥 플랜’을 대통령께 보고드렸습니다. ‘新한옥 플랜’은 2020년 한옥 르네상스 시대의 실현을 목표로 각 부처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다짐한 액션플랜입니다. 이에 따라 한옥을 보급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 한옥에 신기술을 접목하고 산업화하는 전략, 남아 있는 한옥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방안, 한옥을 관광자원 또는 공공 건축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한옥센터는 이와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한옥문화 진흥의 싱크탱크로서 설치된 기구이므로 국가정책과 산업화를 지원하고 한옥 정보의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07년 개소 이후 각종 한옥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고, 건축·도시에 관한 우수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한옥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가한옥센터에서 추진할 연구 및 사업의 성과로 국토환경의 품격 향상과 가장 한국적인 건축문화 창달로 국가 브랜드 향상 및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길 바랍니다. 한옥의 건축문화 열풍이 세계화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국가한옥센터가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한옥센터 설립과 발전적인 운영에 열정을 보여주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손세관 소장님 이하 국가한옥센터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이상정

한옥정책브리프를 새롭게 발간하면서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오랜 고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주자들이 먹고 자고 생각하는 방식, 집을 지을 땅과 기후의 특징, 집 짓는 재료와 형태의 장·단점 등이 빠짐없이 고려되어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아파트가 주거문화의 대표로 자리 잡았지만 주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불어닥친 한옥 열풍과 최근 이슈가 된 땅콩주택의 인기는 새로운 주거문화 창조의 필요성을 절감케 합니다.

한옥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탁월한 문화 수준을 간직하고 있는 주거 유형입니다. 한옥을 들여다보면 한국인의 세계관, 자연관, 인간관이 보입니다. 한옥에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1000년의 최적화 과정을 거쳐온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글로벌 시대 건축·도시·문화자산으로서 역사적 건축물이 대두되고, 친환경·저탄소의 녹색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한옥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옥을 체험해 보면 옛 것을 온양해서 새 것을 만들어낸다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 공자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한옥은 근대화 과정에서 주택의 보급에만 중점을 둔 아파트 환경을 넘어서서 새로운 주거환경을 제안하고 품격 있는 국토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의 창고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대화되지 못한 상태로 수십 년간 방치되었기에 손을 대야 하는 부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한옥을 유지·보전하고, 널리 보급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옥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 아직은 전문성의 결여로 추진의 방향을 효율적으로 설정하지 못하거나 같은 내용의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중복되는 등 기대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연구소에 개소한 국가한옥센터는 한옥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한옥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여,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옥 사업이 일관성 있는 국가정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수립과 사업계획을 지원하고 한옥 산업의 활성화를 선도하며 한옥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한옥정책브리프〉는 한옥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홍보하는 한편 한옥 관련 정책 이슈를 하나씩 짚어봄으로써, 한옥을 둘러싼 궁금증을 해소하고 한옥문화 진흥을 위한 범국민적 공론을 형성하는 매체가 될 것입니다. 〈한옥정책 브리프〉의 발간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한옥의 다양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길 바라며,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손 세 관

국가한옥센터의 비전

1. 한옥 활성화 정책 동향

최근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국토해양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2008년 실시한 희망주거형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42%가 한옥에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아파트 선호도(29%)를 앞서는 등 참살이(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친화적인 한옥이 대안적 주거 유형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종 한옥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토해양부는 2007년부터 한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한옥에 대한 용어 정의(건축법 시행령 제2조),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 기준 완화(건축법 시행령 제2,3조), 한옥 밀집지역에서도 도로폭에 의한 건축률 높이 제한 완화(건축법 시행령 제6조), 한옥의 경우 처마선과 외벽선을 구분하는 대지 안 공지 기준 완화(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옥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부터 ‘한옥기술개발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도 한옥의 활성화 지원정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전주시는 2000

년대 초부터 한옥마을을 도시의 문화자산으로 인식하여 이를 보전·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2006년부터 ‘행복마을’ 사업을 통해 한옥건립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한편, 이러한 최근의 한옥 활성화 정책들은 기존의 한옥 정책들과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한옥 관련 정책은 문화재 한옥을 중심으로 한 보존 위주의 정책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그 결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보다는 과거의 물리적·공간적 상황을 유지·보존하고자 하는 정책을 위주로 진행되어왔다. 이에 비해 최근의 한옥활성화 정책은 현상에 대한 유지·보전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통문화의 적극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한옥 정책과 차이점이 발견되며 발표된 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은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2007.2)과 ‘국격 향상을 위한 신한옥 플랜’ (2010.5)을 들 수 있다.

먼저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2007.2)의 경우 전통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옥을 포함한 6개 분야(한글, 한식, 한복, 한지, 한국음악)를 브랜드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천명한 것으로 이 중 한옥의 경우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하여 기존에 진행되어

비전	목표	실천방안
2020년 한옥 르네상스 시대 실현	한옥을 보급·확산하고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여 국가 품격을 제고하고 녹색성장을 선도	한옥의 보급·확산 농어촌 한옥 확산, 한옥마을 활성화 기술개발 및 산업화 설계·성능·시공기술 R&D, 한옥 관련 산업기반 구축, 설계·시공 전문인력 양성 한옥의 보전·관리 한옥의 멸실 방지, 한옥의 보전 지원 한옥의 적극적 활용 한옥의 관광자원화, 공공시설 한옥 도입

표1. 국격 향상을 위한 신한옥 플랜 (2010.5.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온 문화재 한옥이나 도시한옥에 대한 보전 및 활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옥의 산업화와 문화 컨텐츠화를 담고 있다. 이어서 ‘국격 향상을 위한 신한옥 플랜’(2010.5)은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산림청 등 6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통령께 보고함으로써 한옥의 보급·확산, 한옥기술개발 및 산업화, 한옥의 보전·관리, 한옥의 활용 등 네 가지 실천방안을 담고 있는 정부부처별 로드맵이 마련되었다.

2. 국가한옥센터의 설립 배경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옥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이 부재한 점은 한옥 활성화 정책의 한계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옥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한옥 교육 및 한옥 관련 정보 제공, 대국민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할 ‘국가한옥센터’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국격 향상을 위한 신한옥 플랜’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한옥 분야의 총괄지원센터로서 ‘국가한옥센터’ 설립 필요성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2010.5),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국격 향상을 위한 신한옥 플랜’ 후속 조치로서 ‘국가한옥센터’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설치하였다. (2011.5)

3. 국가한옥센터의 비전과 목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한옥 정책 수립과 사업을 지원하고, 한옥의 산업화를 선도하며, 한옥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옥문화 진흥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토대로 하여 문화자산, 녹색주거환경, 미래가치 등 한옥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가치를 발굴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문화자산으로서 한옥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는 녹색주거환경으로서 한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지원하고, 마지막으로는 미래가치로서 한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옥문화 진흥의
Think Tank”

문화자산으로서 한옥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적 토대 제공

녹색주거환경으로서 한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지원

미래가치로서 한옥문화 세계화를 위한
네트워크 허브 구축

그림2. 국가한옥센터의 비전과 목표



그림1. 국가한옥센터 로고



그림3. 국가한옥센터 설립 취지 (2010.5. 국가건축정책위원회)

4. 국가한옥센터의 사업 내용

국가한옥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한옥 정책, 한옥 산업, 한옥 정보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한옥 정책에 있어서는 한옥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의 지적 토대를 제공하는 ‘한옥 정책개발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고, 한옥 산업에 있어서는 품격 있는 21세기형 한옥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한옥 산업화 및 디자인 개발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옥 정보에 있어서는 한옥 정보의 세계적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한옥정보관리’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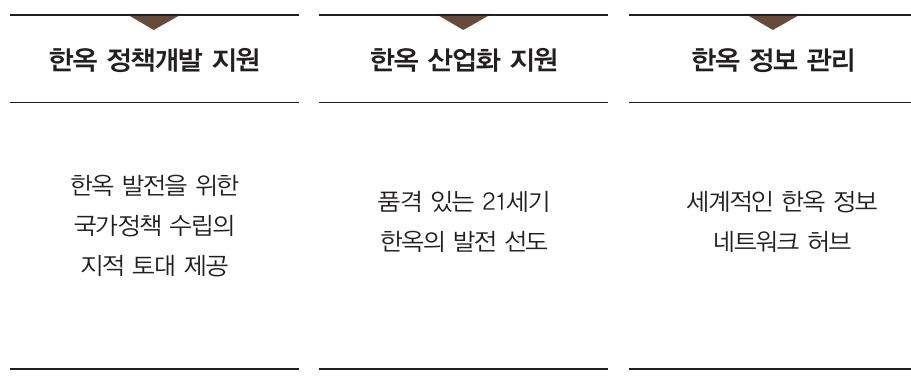


표2. 국가한옥센터 3대 사업 내용

5. 국가한옥센터의 세부사업

5-1. 한옥 정책개발 지원 부분

‘한옥 정책개발 지원’은 기준 한옥의 보전과 활용에 관련된 정책과 새로운 한옥의 보급 육성에 관련된 정책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한옥의 경관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고유의 도시문화와 경관을 창출하고, 한옥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한옥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기준을 제시하며, 신한옥의 육성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도에는 도심 한옥 밀집지역의 주거실태를 조사하여 국가 한옥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한옥 주거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방안연구)와 한옥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 방안 등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한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및 법제도 개선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성장계획	정책	산업화	지원사업	기간
기반 조성	정책현황 조사 정책기반 연구	공공건축용 한옥 연구 및 사업추진	DB 및 네트워크 구축 한옥 통계기준 마련	2011~2013
도약기	정책적 대응 연구 추진 한옥 인증 및 전문가 인증제도 구축	한옥 산업화 정책 심층 연구	전국 한옥 기초 통계조사 실시	2014~2016
성숙기	정책적 대응 연구 지속	한옥산업 클러스터 안정화	한옥정보센터 구축 한옥 사업영역 확대	2017~2019

2020년
한옥 르네상스 시대의
실현

표3. 국가한옥센터의 향후 계획

5-2. 한옥 산업화 및 디자인개발 지원 부분

‘한옥 산업화 및 디자인개발 지원’은 지금까지 현장 생산 중심으로 진행된 한옥의 생산방식을 변화시켜서 한옥을 산업화하고 한옥의 친환경적 기술을 현대화하며, 한옥의 새로운 가능성과 집합적 경관조성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신한옥의 보급·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옥의 설계, 시공, 재료, 설비 등 한옥 관련 산업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옥 기술의 고도화와 한옥 기술개발 연구성과들의 보급·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스타일 공공건축과 집합적인 한옥마을 경관의 향상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소규모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한스타일 공공건축물 공급방안 연구)와 한옥마을 지원정책을 통해 한옥마을의 집합적 경관조성 방향을 제안하는 연구(한옥마을 지원정책을 통한 역사문화가로 경관조성 방안 연구), 우리 건축의 전통과 현대적 해석, 그리고 미래가치를 구현한 한옥건축 작품의 발굴 및 시상을 위한 연구(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기획 및 운영관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옥 관련 산업체 및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조사사업(한옥산업·정책동향 조사)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은 한옥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여서 한옥 건축의 저변을 확대하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국가한옥센터가 매년 창의적인 주제를 가지고 주최할 예정이다.

5-3. 한옥 정보관리 부분

‘한옥 정보관리’는 한옥에 관련된 연구, 현황, 산업 등 한옥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로서 한옥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옥 관련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한옥 정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교육 및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며, 이를 국내외에 홍보함으로써 한옥의 수요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국토해양부와 함께 국내 최초의 한옥 관련 포털사이트인 국가한옥포털을 구축하여 한옥 현황 정보, 한옥 정책 정보, 한옥 연구 정보, 한옥 산업 정보, 디지

털 한옥 건축 시뮬레이션, 한옥 뉴스 및 커뮤니티 등을 서비스할 예정이며, 특히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옥 기술개발 R&D 사업의 성과를 실시간으로 서비스함으로써 한옥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옥의 저변 확대를 위한 한옥 기초교육 및 기타 전통문화와 연계된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며, 한옥 설계교육 과정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전문교재를 개발할 예정이다.

6. 국가한옥센터의 향후 계획

국가한옥센터는 한옥 정책 연구와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한옥 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자리매김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한옥 정책 지원의 혁신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한옥의 수요 확산과 산업화 지원을 통해 한옥의 활성화와 보급을 견인하는 한옥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한옥 관련 정보의 명실상부한 중심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들의 이행으로 국가한옥센터는 한옥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는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한국 고유의 건축도시문화와 주거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옥 세계화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모든 활동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2020년 한옥 르네상스 시대가 구호가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국가한옥센터장 권영상
yskwn@auri.re.kr